

<2014.11.04.>

全羅日報

2014년 11월 04일 (화)  
종합 01면

# 생태자원 활용 관광정책 만든다

## 독특성-차별화자원 강점 살려 자연 친화 '에코프렌들리' 추구

전북도가 도내에 산재돼 있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정책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생태자원을 전북만의 강점으로 삼아,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공원 10개소를 비롯해 습지보호지역 4개소, 특성도서 33개소, 계곡 및 폭포 30개소, 천연기념물 31개소 등 모두 253개소의 생태 자원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이를 활용한 사업으로는 문화·생태탐방로 11개소, 녹색·마실길 25개소, 생태마을 42개소, 마을숲 11개소 등 총 121개 사업

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이들 생태자원 및 관련 사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이 모이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관광 기본방향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최근엔 전문가 그룹과 워크숍도 가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은 인간과 생태의 친화를 도모하는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적 관광자원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차별성이 없는 생태관광지는 실패하기 때문에 전주한옥마을과 같은 독특성·유일성 콘텐츠를 갖춘 생태·지질·경관지역을 선도사업지로 하는 생태 관광지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순창 강천산+세계 3대 약수는 '경관지역형', 부안 채석강·진안 마이산은

'지질공원형', 고창 운곡습지+고인돌문화는 '생태습지·야생지형' 등 선도사업지로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태관광지인 만큼 숙소와 먹을거리 등 체류여건도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텐트형 숙소, 산림바이오메스칩 보일러, 로컬푸드 등 마을별로 친생태적 체류여건을 구비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전문가들이 동참하는 생태관광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생태관광 컨설팅단 구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jw@  
/편집=최병호기자·hoya0276@

180 X 107 mm

전북매일신문

2014년 11월 05일 (수)  
종합 02면

# 전라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본격

## 생태 자원 11~13% 점유 "콘텐츠 발굴 선결과제"

전북도가 타지역에 비해 보전이 잘 돼 있는 생태자원의 잇점을 활용,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4일 도가 발표한 생태관광 현황자료에 따르면 생태자원은 공원 10개소, 습지보호지역 4개소, 특성도서 등 33개소, 계곡·폭포 30개소, 천연기념물 31개소 등 총 254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태자원 활용사업 분야는 문화·생

태탐방로 11개, 녹색·마실길 25개, 생태마을 등 42개, 마을숲 11개 등 총 121개 사업으로, 도내 생태자원은 전국대비 11~13%를 점유하고 있는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습지 등 생태관광 우수지역 현황조사 용역을 올 12월까지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도 고창 운곡습지, 부안 람사르 갯벌, 무주 내도섬 등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2014 생태관광지역 지정 대비 연구과제 추진'을 올 12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를 두고 도내 한 관계자는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에 있어 지역민과 행정 모두 개방적인 사고의 의식 제고는 물론 바이오메스칩 등 생태관광의 콘텐츠 발

굴이 선결과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민의 협의체 구성은 지역 사회, 협동조합, 민간전문회사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도는 생태보호·규제 지상주의에서는 인간의 접근은 차단돼 관광자원화가 불가능한 만큼, 인간과 생태의 친화를 도모하는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적 관광자원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태관광지의 전국적 유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없는 생태관광지는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주한옥마을과 같은 독특성·유일성 콘텐츠를 갖춘 생태·지질·경관지역을 선도사업지로 하는 생태관광지 개발을 도모키

로 했다.

이를 위해 생태관광지 유형별로 독특성·유일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관지역형(순창 강천산, 세계 3대 약수), 지질공원형(부안 채석강, 진안 마이산), 생태습지·야생지형(고창 운곡습지, 고인돌문화)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국립공원 주 민마을형 선도사업지를 발굴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생태관광지별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태관광지별로 텐트형 숙소를 비롯해 산림 바이오메스칩 보일러, 로컬푸드 등 친생태적 체류여건을 구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연식 기자(meg75@)

240 X 96 mm